

##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신상춘\*, 조성제<sup>1</sup>  
<sup>1</sup>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 The Impact of Names upon the Stress and Self-esteem Before and After Renaming

Sang-Chun Shin<sup>1\*</sup> and Sung-Je Ch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명클럽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16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명 후 6개월 이상 된 자를 의도적 표집해서 1회의 개명후비교조사로 개입효과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명전보다 개명 후에 낮아졌고, 이름에 대한 자존감은 개명 전보다 개명 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명 후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므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names on stress and self-esteem, comparing before and after renaming. A survey was published and conducted on a renaming club website for the period from 1 April 2013 to 31 May and there were 161 participants. The invitation to survey was limited to members who had changed their name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survey and the impact was measured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first renaming.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level of stress caused by one's name was lowered after renaming, and one's self-esteem significantly went up compared to before renaming. Therefore, the stress from one's name is believed to affect one's self-esteem, and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as the lower the stress from one's name becomes, the higher one's self-esteem goes up.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reducing stress caused by names, as it has proved that the self-esteem increases and the level of stress is lowered after renaming.

**Key Words** : Before and After Renaming, Name, Name Letter Effect, Naming, Renaming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름은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대표한다[1].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장래 희망과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2]. 또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웰빙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자

신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명이 유행하고 있다. 대법원[3]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2년까지 개명 신청자는 116만 명으로 국민 44명당 1명이 개명했다. 개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명 신청의 주된 요인은 이름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성 구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4] 등이다. 이름으로 놀림을 받거나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Chun Shin(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4156-0574 email: ssc58@hanmail.net

Received March 14, 2014

Revised (1st April 3, 2014, 2nd April 14, 2014, 3rd April 28, 2014)

Accepted May 8, 2014

개명사례를 통해서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발남, 김치녀, 최병자, 윤창녀 같이 저속한 사물이 연상되거나 타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유로 개명[5]한 경우이다. 이들은 개명하기 전까지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요즘 대세일까? 대법원에 의하면 2006년부터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란 이름이 최고 인기인데, 이는 한자 표기가 가능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이름이다. 최근엔 중국의 부상으로 한자 표기가 가능하면서도 영어발음이 어렵지 않은 이름이 선호된다고 한다. 대법원의 최근 5년 통계에서 개명한 사람이 가장 많이 회망한 이름은 남성은 민준, 지훈, 현우였으며, 여자는 서연, 지원, 서영 순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이름을 통해 행복한 삶을 회구하면서도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개명 열풍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6].

또한 프로야구에도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2014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예전의 이름을 내리고 새로 태어나는 '개명 열풍'이 뜨겁다[7]. 프로야구 선수들은 올해만 10명이 이름을 바꿨다. 개명한 선수는 등록선수 500여 명의 2%에 달하여 일반인의 6배 수준인데, 다 야구 때문이라고 한다[8]. 프로야구 선수들의 잇따른 개명에 대해,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있다. 외면적인 부분일 경우 '성형'을 하게 되고,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개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는 인기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며, 대중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력만으로 힘들다면 개명 같은 부분에 의지하게 된다[9]는 것이다. 이름도 시대와 사회상황을 반영한다. 이름보다 개명은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상황에 어울리며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는 이름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 줄 것이다.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하여 Kim[10]은 자아존중감과 이름 만족도와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하였으며, Gebauer[11]도 회귀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름은 자존감 저하, 흡연 증가, 교육저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

서 화풀이를 잘하고, 흡연이 증가하여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Shin[12]의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그는 개명전후 자기지각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성공, 정서, 성격요인 모두 개명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 본인이 원해서 개명하면 성공, 정서, 성격요인 모두 자기지각척도가 더 높아져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Kalist[13]의 연구에서는 이름인기지수(PNI)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에 더 빠지기 쉽다고 한다. PNI가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름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화풀이도 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싫어서 화풀이를 더 잘 낸다는 것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Nelson[14]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탓에 자신의 이름과 비슷해 보이는 안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예로, 학생들은 A학점을 원하지만 C나 D처럼 낮은 성적을 의미하는 이니셜을 가진 학생은 A나 B 이니셜을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다. 특히 C나 D 이니셜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름효과라고 한다. Pelham[15]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철자 같이 자신과 연결된 것을 선호한다. 거주지와 직업 선택과 같은 인생의 중요 결정에 암묵적 자기중심주의가 작용하여 자신의 성이나 이름과 닮은 장소에서 거주 할 확률이 높는데 이를 연상현상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연상현상이나 이름효과 때문에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5,10-13]는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흡연과 교육 심지어는 범죄율, 화풀이와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국민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4,15]에서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주지, 직업, 중요 인생사까지도 연상 작용을 일으켜서 이름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Abel[16]의 연구처럼 사람의 이름은 상징적인 힘이 있어서 사망 시기까지 결정하고, 이름의 첫 글자가 수명과 인생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름이 [5-16]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명이란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즉, 개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조상이 지어준 이름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바꾸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많다. 그러나 개명전 후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자존감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개명하기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자설문법으로 개명클럽 웹사이트(회원 1만)에 게시하여 161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개명 후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비확률표집 중 의도적 표집으로 1회의 개명후비교조사로 개입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외생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개명전후 이름에 의한 스트레스, 자존감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동일집단후비교조사이다. 스트레스척도와 자존감척도의 점수부여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별로 자기기입식으로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과 90%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88명으로 산출되었다.

### 2.2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개명 특성 5문항, 스트레스 특성 6문항, 이름 자존감 특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 2.2.1 대상자 개명특성 항목

개명특성 변수는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기존이름 작명인, 개명 이름 작명인, 개명을 원한 사람, 개명하고 변화된 점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개명이유와 개명 후 변화는 단답형으로 설문하였으나 성씨 별 특성, 가장 불만·만족스러운 이름에 대해서는 설문하지 않았다.

### 2.2.2 스트레스척도 관련 특성

전경구와 김교현[17]이 개발하고, 조옥귀[18]가 수정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 .74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 .777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 2.2.3 자존감척도 관련 특성 항목

Rosenberg[19]의 11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척도를 윤유경[20]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 .85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 .824이다.

하위영역은 ‘불안상승’ 요인, ‘만족감’ 요인, ‘운명개척’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불안상승’ 요인은 ‘이름으로 종종 불안해 보았다’, ‘항상 나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이름으로 고민해 보았다’, ‘이름으로 놀림을 당해 보았다’,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싫다’로 5문항이다. ‘만족감’ 요인은 ‘내 이름이 자랑스럽다’, 이름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내 이름에 만족한다’로 3문항이다. ‘운명개척’ 요인은 ‘개명하면 대박날 것 같다’, ‘개명하면 운명이 바뀔 것 같다’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개명 특성은 빈도분석,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름 자존감에 대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alpha$ 의 계수,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변화는 t-test를 했다. 개명을 원한 사람과 개명이유에 따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름 자존감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2.5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21].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for each zon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Stress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3	.862
	Name avoid	3	.568
Name the stress on		6	.777
The name of self-esteem	Anxiety rises	5	.790
	Satisfaction	3	.929
Pioneering fate		2	.887
The name of self-esteem		10	.824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개명 특성

개명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존 이름을 작명한 사람은 '부모님'이 75.2%로 가장 많고, 개명한 이름은 '작명소'가 73.3%로 가장 많았다. 개명을 원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2.0%가 '본인'이었으며, 개명할 이유는 '이름이 나빠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 개명 후 변화된 점으로는 '자신감' 41.0%, '만족감' 28.6%, '성공적인 삶' 9.9% 순이었고, '아직 모름'은 17.4%이었다.

### 3.2 개명전후 스트레스 변화

개명 전과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성패관련 요인, 이름회피 요인 모두 개명 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는 개명 전( $M=2.76$ )에서 개명 후( $M=1.48$ )로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성패관련 스트레스는 개명 전( $M=2.80$ )에서 개명 후( $M=1.53$ )로 개명 후 성패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졌으며, 이

[Table 2] Renamed the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	Percent (%)
Original Name	Parents	121	75.2
	Naming Experts	7	4.3
	Grandparents	31	19.3
	Etc.	2	1.2
	Own	22	13.7
	Current name	Parents	14
Renamed people wanted	Naming Experts	118	73.3
	Etc.	7	4.3
	Own	116	72.0
Why renamed	Parents	26	16.1
	Naming Experts	14	8.7
	Etc.	5	3.1
	Bad name	70	43.5
Renamed after the change	Hope renamed since childhood	42	26.1
	Hope renamed from adult	20	12.4
	Etc.	29	18.0
All	Satisfaction	46	28.6
	Confidence	66	41.0
	A successful life	16	9.9
	I do not know yet	28	17.4
	Etc.	5	3.1
All		161	100.0

름회피 스트레스는 개명 전( $M=2.72$ )에서 개명 후( $M=1.42$ )로 개명 후 이름회피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Table 3] Renamed before and after the name change of the stress on

Division	Stress				Name the stress on	
	Success or failure		Name avoid		M	SD
	M	SD	M	SD	M	SD
Renamed before	2.80	1.04	2.72	.97	2.76	.86
After renaming	1.53	.66	1.42	.58	1.48	.57
Before-after	1.27	1.15	1.29	.99	1.28	.92
t	13.979***		16.565***		17.590***	
p	.000		.000		.000	

\*\*\*  $p < .001$

### 3.3 개명전후 이름 자존감 변화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자존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자존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세부적으로 불안상승 요인, 만족감 요인, 운명개척 요인 모두에서 개명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름에 대한 자존감은 개명 전( $M=2.75$ )에서 개

명 후(M=4.02)로 개명 후 이름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불안상승은 개명 전(M=3.04)에서 개명 후(M=1.34)로 불안상승이 낮아졌으며, 만족감은 개명 전(M=2.35)에서 개명 후(M=4.00)로 만족감이 높아졌고, 운명개척정도는 개명 전(M=3.19)에서 개명 후(M=3.54)로 개명 후 운명개척정도가 높아졌다.

[Table 4]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he name of self-esteem

Division	The name of self-esteem						The name of self-esteem	
	Anxiety rises		Satisfaction		Pioneering fate		M	SD
	M	SD	M	SD	M	SD		
Renamed before	3.04	.94	2.35	1.11	3.19	1.13	2.75	.77
After renaming	1.34	.49	4.00	1.08	3.54	1.24	4.02	.41
Before-after	1.70	1.07	-1.65	1.50	-.35	1.38	-1.27	.89
t	20.214***		-13.882***		-3.196**		-18.099***	
p	.000		.000		.000		.000	

\*\* p<.01, \*\*\* p<.001

### 3.4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R^2=0.416$ 으로 전체 변동의 41.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 회피 요인 스트레스만 이름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요인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R^2=0.191$ 로 전체 변동의 19.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피 요인, 성패관련 요인 순으로 스트레스가 이름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요인과 성패관련 요인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5] Before renamed the name for the name of self-esteem impact of stress

	The dependent variable: Name of self-esteem						
	B	SE	$\beta$	t	p	VIF	
(Constant)	4.257	.157		27.065***	.000		
Stress	Success or failure	-.094	.051	-.128	-1.859	.065	1.275
	Name avoid	-.459	.055	-.576	-8.397***	.000	1.275

$R^2 = .416$ ,  $adj R^2 = .409$ ,  $F = 56.386$ \*\*\*

\* p<.05, \*\* p<.01, \*\*\* p<.001

[Table 6] Name after name was renamed for the stress impact on self-esteem

	The dependent variable(DV): Name of self-esteem						
	B	SE	$\beta$	t	p	VIF	
(Constant)	4.491	.082		54.494***	.000		
Stress	Success or failure	-.143	.059	-.231	-2.421*	.017	1.783
	Name avoid	-.176	.068	-.248	-2.593*	.010	1.783

$R^2 = .191$ ,  $adj R^2 = .181$ ,  $F = 18.637$ \*\*\*

\* p<.05, \*\*\* p<.001

### 3.5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와 같다.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불안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R^2=0.637$ 로 전체 변동의 63.7%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피 요인, 성패관련 요인 순으로 스트레스가 불안상승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와 성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상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R^2=0.101$ 로 전체 변동의 10.1%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피, 성패관련 순으로 스트레스가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성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운명개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R^2=0.061$ 로 전체 변동의 6.1%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으나, 유의수준 5%에서 성패관련과 이름회피 스트레스는 운명개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tress is the name for the name of the renamed former sub-factors impact on self-esteem

	DV: Anxiety rises		DV: Satisfaction		DV: Pioneering fate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655		2.820		2.306	
Stress						
Success or failure	.254	.280***	.229	.215*	.178	.165
Name avoid	.615	.629***	-.409	-.355***	.143	.122
	$R^2 = .637, \text{adj } R^2 = .101$		$R^2 = .101, \text{adj } R^2 = .061$		$R^2 = .061, \text{adj } R^2 = .049$	
	$F = 138.918^{***}$		$F = 8.914^{***}$		$F = 5.108^{**}$	

\* p<.05, \*\* p<.01, \*\*\* p<.001

### 3.6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름 자존감과의 상관관계

[Table 8] After renaming the name for the name of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ivision	Stress		Name of self-esteem			Name of self-esteem
	Success or failure	Name avoid	Stress rises	Satisfaction	Pioneering fate	
Success or failure	1					
Name avoid	.663***	1				
Name for stress	.924***	.898***	1			
Anxiety rises	.592***	.671***	.689***	1		
Satisfaction	-.032	-.097	-.068	-.244*	1	
Pioneering fate	.024	-.131	-.052	-.147	.501**	1
Name of self-esteem	-.396**	-.401**	-.436**	-.705**	.636**	-.119

\*\* p<.01, \*\*\* p<.001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분석결과는 자존감이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의 성패관련, 이름회피 요인 모두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름 자존감의 불안상승은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 성패관련 요인, 이름회피 요인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개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름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개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명전보다 개명 후에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덜 받고, 자존감은 높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명전보다 개명 후에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성패관련 스트레스는 개명 전(M=2.80)에서 개명 후(M=1.53)로 개명 후 성패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졌으며, 이름회피 스트레스는 개명 전(M=2.72)에서 개명 후(M=1.42)로 개명 후 이름회피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이 결과를 이름인기 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에 더 빠지기 쉽다는 연구가 지지한다[13]. 프롤야구 선수는 대중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9]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름은 자존감 저하, 교육저해를 받는다[11]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9,11,13]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이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이름이 부정적이거나 이름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범죄의 경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름에 대한 자존감의 변화는 개명 전보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불안상승 요인은 개명 전(M=3.04)에서 개명 후(M=1.34)로 불안상승이 낮아졌으며, 만족감 요인은 개명 전(M=2.35)에서 개명 후(M=4.00)로 만족감이 높아졌고, 운명개척 요인은 개명 전(M=3.19)에서 개명 후(M=3.54)로 개명 후 운명개척 정도가 높아졌다.

이 결과를 자이존중감과 이름만족도가 정적상관이 있

다는 Kim[10]과 좋은 이름을 통해 행복한 삶을 회구하면서도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개명열풍으로 표출되었다[6]는 연구가 지지한다. 이는 [6,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자존감에 변화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개명 전에는 이름회피 요인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름회피 요인, 성패관련 요인 순으로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올해만 10명이 이름을 바꿨는데, 개명한 선수는 등록선수의 2%에 달하여 일반인의 6배 수준인데, 다 야구 때문[8]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 Nelson[14]의 학생이 A학점을 원하지만 C나 D처럼 낮은 성적을 의미하는 이니셜을 가진 학생은 A나 B 이니셜을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것도 C나 D 이니셜이 A나 B 이니셜 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주장과 Abel[16]은 사람의 이름은 상징적인 힘이 있어서 사망 시기까지 결정한다는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8,14,16]의 연구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명 후보다 개명 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불안상승 만족감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운명개척 요인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름인기 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13].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름은 자존감 저하, 흡연증가, 교육저해[11]와 개명전후 자기 지각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12]는 연구가 지지한다. 그러나 운명개척 요인에 대한 본 연구와 [11-13]의 연구결과가 다르다. 이는 개명하는 사람은 개명하기 전에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운명개척 요인에 무기력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섯째, 개명전후의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름 자존감이 이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이름 자존감의 불안상승은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의 성패관련, 이름회피 요인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 결과를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결국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을 더 나쁜 방향으로 결정한다[13]와 지속적인 사물이 연상되거나 타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유[5]로 개명한 경우가 지지한다. 이는 [5,1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적상관이 있다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명전후 이름에 의한 스트레스, 자존감의 인식도 변화의 차이를 검정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단일집단후비교조사이다. 이름을 개명한 161명을 연구대상으로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성패관련, 이름회피 요인 모두 개명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는 개명한 경우에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둘째,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자존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세부적으로 불안상승, 만족감, 운명개척 요인 모두에서 개명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개명한 경우 자신감이 생겨서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개명 전에는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 중에서 이름회피 요인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개명 후에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름회피, 성패관련요인 순으로 자존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의미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넷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이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의미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명할 경우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반면에 이름에 대한 자존감은 높아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인 스스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개명효과

가 더 높게 나왔으므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명 기회를 주거나 아명, 자, 호 예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개명 후 가장 큰 변화가 ‘자신감’이었다. 특히 ‘자신감’은 부모님이 개명을 강요한 경우보다 자신이 개명을 원한 경우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개명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강요보다는 본인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개명과 관련하여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D. H. Shin, The Process Changes of the Times of the Times of the Names And the Present Used Condition.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2] M. T. Kim, A Study on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Naming in Modern Korean Society. *Korea Institute of Religion, Religious Studies* Vol. 65, pp.151-186. 2011.
- [3] The Supreme Court, Monthly Statistics court (Non-Contentious lyrics: 2001-2012), 2012. 12.
- [4] The Supreme Court, Sang-gyu Kim Supreme Court hearing officer Lyrics, 2010. 3. 21.
- [5] Y. H. Yoo, "The Effect of Attractiveness to Student Name on Student Evaluation by Teacher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4.
- [6] SBS TV. Renaming came terrifyingly (SBS 8 o'clock news). 2014. 1. 3.
- [7] The Kukmin Daily(News National cookies). Well change the nam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ivilized frenzy. 2014. 3. 19.
- [8] MBN. If the ball well, but... "It's about the name it'(MBN 8 News). 2013. 11. 27.
- [9] Daily Sports. Well ... I want baseball players 'renaming psychology'. 2013. 11. 28.
- [10] H. J. Kim, Adolescent' Early Friendship Formation and Name Attractivenes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 [11] Gebauer, J. E., Leary, M. R., & Neberich, W., Unfortunate First Names: Effects of Name-Based Relational Devaluation and Interpersonal Neglec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pp. 590-596. 2012.
- [12] S. C. Shin, Study on the motivation for renaming and the level of self-perception scale attained after renam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296-4302, 2013.  
DOI: <http://dx.doi.org/10.1177/1948550611431644>
- [13] Kalist, D. E., & Lee, D. Y., First Names and Crime: Does Unpopularity Spell Troubl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0 Issue 1, pp. 39-49. 2009. 3.  
DOI: <http://dx.doi.org/10.1111/j.1540-6237.2009.00601.x>
- [14] Nelson, L. D., & Simmons, J. P., Moniker maladies: When names sabotage success. *Psychological Science*, 18, pp. 1106 - 1112.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467-9280.2007.02032.x>
- [15] Pelham, B. W., Mirenberg, M. C., & Jones, J. K., Why Susi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Implicit egotism and major life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pp. 469 - 487.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2.4.469>
- [16] Abel, E. L., & Kruger, M. L., Athletes, Doctors, and Lawyers with First Names Beginning with "D" Die Sooner, *Death Studie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34:1, pp. 71-81. 2009.
- [17] G. G. Jeon, & G. H. Kim, Development of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 Journal of Psychology: Clinical*, 10, pp. 137-158. 1991.
- [18] O. W. Joo, Depressed level of vulnerabili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stress. Chung-Ang University PhD thesis, 1993.
- [19]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0] Y. G. Yun. Predictors of subjective ag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Ewha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1996.
- [21] S. I. Chae,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p.25. Seoul: Beopmuna, 1980.

**신 상 춘(Sang-Chun Shin)**

[정회원]



- 1992년 3월 ~ 1995년 2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박사수료)
- 2013년 3월 ~ 2014년 4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
- 2014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관심분야>

성명학, 기명상담, 심리상담, 복지상담, 교육학

---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성결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융합,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복지상담, 교육학